

‘피한 자’의 죄의식과 ‘세대 공동 운명’의 모색

이지은**

하근찬,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일제 말기 여성 동원 재현 연구*

초록 이 글은 일제 말기 동원의 기억이 남성 중심으로 재구성되어 있으며, 집단적 정치 주체인 동원 세대 역시 여성을 배제한 채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두고, 한국문학에 나타난 여성 동원의 재현 양상에 주목하였다. 이때 한국문학에서 여성 동원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다룬 하근찬과 박완서가 피해자와 같은 세대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1931년생 하근찬과 박완서는 ‘문단적’ 세대 위치가 다른 까닭에 각기 다른 작가군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이들은 공통적인 세대 의식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 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피한 자’로서 증언에의 소명 의식을 보여주었다. 하근찬은 1965년 한일협정을 계기로 민족수난사를 반복하는 가운데, 일제 말기 10~20대 민중 여성들의 운명이 제국의 동원과 민족 재생산을 위한 혼인 사이에 갇혀 있음을 드러냈다. 중요한 점은 하근찬의 소설들이 제국-식민지 사이의 젠더적 표상 체계에서 벗어나 민족 재생산을 위한 혼인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박완서는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와 더불어 여성 동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현하였다. 박완서는 여성 동원의 피해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것을 피하기 위해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야 했던 ‘피한 자’의 원한까지 켜켜이 쌓여야 한다는 성찰을 보여주며 제국의 강제 동원의 피해를 세대적 문제로 확장하였다. ‘피한 자’들이 구성하는 ‘여성 동원 세대’는 남성 중심의 동원 세대 개념에서 배제된 집단 주체를 가시화하며, 나아가 정치적 집단화를 통한 세대 구성이 아니라 공동체적 윤리에 근거한 세대 구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하근찬, 박완서, ‘위안부’, 정신대, 세대, 동원, 증언

* 본 연구는 2024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학 강연-집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1. ‘피한 자’의 증언에의 소명 의식

한국사회에서 일제 말기 여성 동원의 문제는 귀향한 여성들[還鄉女]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결부되어 동년배 전체의 집단적 문제로 이해되기보다 오히려 같은 세대에서 피해자를 소외하는 방식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 가운데는 피해자와 같은 세대가 많다. 학자이자 여성운동가인 이효재, 윤정옥은 1924년생, 1925년생으로, 최초의 공식 증언자인 김학순(1924년생)과 동년배이다. 실제로 윤정옥은 여러 자리에서 돌아오지 못한 또래 여자들에게 대한 기억이 ‘위안부’ 문제를 추적하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¹ 『친일문학론』의 저자 임종국은 1970년대 초부터 여자정신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였고, 남성 중심적 시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 동원 문제에 관한 선구적인 역할을 한 평론가로 평가된다. 박경리는 정신대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결혼해야 했던 자전적 일화를 소설에 투영하였고, 하근찬은 1970년대 역사소설을 통해 정신대에 차출되거나, 동원을 가까스로 피한 여성 인물을 반복적으로 그렸다.

한국문학사에서 임종국(1929년생), 박경리(1926년생), 하근찬(1931년생)은 1920년대 중반에서 3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나 식민지 시기 교육을 받고 제국의 규범을 내면화한 뒤 해방을 맞이한 ‘해방세대’로 분류된다. ‘해방세대’는 1965년 한일협정을 전후하여 민족국가 및 이에 결부되는 자기 정체성을 재조정하는 담론장을 형성했다고 평가된다.² 그런데 1970년 『나목』으로 뒤늦게 등단한 박완서는 해방세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1931년생으로

1 윤미향(2016), 『25년간의 수요일』, 사이행성, pp. 120~123; 김수진·윤정옥(2001), 「“애들, 어떻게 됐나? 내 나이 스물, 딱 고 나이라고.”」, 『여성과 사회』 제13호, 한국여성연구소, pp. 104-112.

2 권보드래(2020), 「내 안의 일본: 해방세대 작가의 식민지 기억과 ‘친일’ 문제」,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pp. 400-401.

하근찬과 동갑이다. 박완서는 자신을 “소년시절부터 청년기까지 한창 좋은 나이를 중일전쟁, 이차대전, 6·25남침 등 쉴 새 없이 겪은” “시대를 잘못 만난 세대”라고 규정하는데,³ 이는 하근찬의 세대 인식과 매우 유사하다.⁴ 이들은 여성 동원이 자기 또래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으며, 참혹한 시대를 통과한 이로서 증언에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근찬은 “정신대에 내보내지 않기 위한 부모의 남모를 속셈”으로 “한 학년 아래인 5학년 여학생 하나가 학교를 그만두고 시집”⁵갔던 일을 기억하고, 이를 소설에 반복해서 등장시킨다. 또한 정신대로 동원된 여성의 일대기를 그린 『월레소전』의 작가의 말에서는 “나는 이 소설을 통해서 그런 가공할 역사의 일면을 증언한 셈”⁶이라고도 했다. 박완서는 고향 친구들이 “단지 정신대를 면하기 위해” “울며불며 시집을 가버”린 사건을 소개하며 “증언의 의무야말로 모진 시대를 살아남은 자의 피치 못할 운명”이라고 강조했다.⁷ 문학사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하근찬과 박완서⁸가 보여주는 공통의 세대 의식과 그것의 중요한 핵으로서 일제에 동원된 또래 여자들에게 대한 기억은 한국 여성(문학)사적 측면에서 새로운 세대 구성의 준거가 될

3 박완서(1996), 「삶과 정신의 운명적 이중성」, 『역사비평』 1996년 봄, 역사비평사, p. 175. 이 글은 “한국의 세대론-정치 의식과 사회 의식” 특집 가운데 60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실려 있다.

4 하근찬(1988), 「전쟁의 아픔, 기타」, 『산울림』, 한겨레, pp. 3-5.

5 하근찬(1997), 「수난시대, 산에 들에」, 『내 안에 내가 있다』, 엔터, pp. 259-260.

6 하근찬(1978), 『월레소전』, 옥당, 앞날개.

7 박완서(2000), 「증언의 의무」, 『일본 그 슬픈 악연』(한국여성문학인회 편), 담계, p. 20.

8 기존 연구에서 하근찬은 1920~30년대에 태어나 식민지시기에 교육을 받고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등단한 ‘전후세대’(한수영) 혹은 ‘해방세대’(권보드래)로 분류된다. 한편, 1970년에 등단하여 2000년대까지 왕성한 창작활동을 이어간 박완서는 문학사의 어느 한 시대에 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상경의 경우 박완서를 1990년대 작가로 호명한다. 이에 관해서는 한수영(2007), 「전후세대의 문학과 언어적 정체성: 전후세대의 이중 언어적 상황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 259; 권보드래(2020), pp. 400-401; 이상경(2011), 「박완서와 근대문학사: 서사의 힘으로 1990년대에 맞선 작가」, 『여성문학연구』 25, 한국여성문학학회, pp. 13-18 참조.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사적으로 전쟁 동원의 기억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쟁 세대 또한 이와 유사하다.⁹ 예컨대, 독일에서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세대를 지칭하는 ‘전선 세대’(front generation)나, 한국문학사에서 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식민지 청년을 가리키는 ‘학병 세대’¹⁰는 여성을 배제한 세대 개념이다. 다양한 전쟁 경험이 정치적·사회적 맥락에 의해 사후적으로 재구성됨으로써 만들어지는 전쟁 세대는 당대의 중요한 정치적 주체로 부상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빚는다.¹¹ 이에 대해서는 여성의 후방 경험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¹² 일제 당국의 직·간접적인 관여하에 여성도 동원의 대상이 되었던 식민지 조선의 경우 여성의 경험은 후방에 국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동원된 여성 가운데에는 취약한 계층이 많았기 때문에 역사적 조건에 따른 사회적 행동을 전제하는 ‘세대’의 개념으로 피해자 집단이 재구성되기는 어려웠다.¹³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 동원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그린 이들이 피해자들과 동년배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해방 이후 여성운동이나 각종 글쓰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여성 동원 문제를 환기함으로써 이 문제가 망각 속에 방기되는 것에 저항하였고, 여성 동원의 피해를 또래 여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세대 전체의 문제로

9 크리스티나 베닝하우스(2014), 한독젠더문화연구회 역, 「세대의 성: 1930년대의 세대적 특성과 남성성의 관계」, 『세대란 무엇인가?』(올리케 유라이트·미하엘 빌트 편), 한울아카데미, pp. 193-194.

10 학병은 1920년 전후에 태어나 ‘반도인학도특별지원병제’(1943.10 공포)로 일본군에 징집된 이들을 일컫는다. 식민지 시기 최고 엘리트 집단이었던 이들에게는 해방 후 조국 재건이라는 역사적 과업이 주어졌고, 이를 통해 학병 세대는 학병 징집자, 기피자, 면제자를 모두 아울러 구성된다. 학병 세대에 관해서는 김건우(2018), 「운명과 원한」, 『서강인문논총』 52, 서강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pp. 107-108 참조.

11 Richard Bessel (1995), “The ‘front generation’ and Weimar”, *Generation In Conflict* (Ed. Mark Rosem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25-127.

12 Richard Bessel (1995), pp. 129-130.

13 크리스티나 베닝하우스(2014), p. 192.

의미화했다.

독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나치 정권하에서 강제수용소의 공포에 시달렸으나 가까스로 수용소행을 피했다. 그는 종전 이후 적극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시작하면서 “상호 간에 존재하는 비상한 차이를 중착점이 아닌 출발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우리의 대화는 의미를 갖게”¹⁴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독일인은 ‘패전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균질화될 수 없는 “우리 안의 현저한 입장 차이”,¹⁵ 즉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지만, 그 특수한 양상을 보면 실로 엄청난 차이”¹⁶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 양상의 차이를 출발점으로 인정한 뒤 그가 논의한 것은 죄의 문제다. 그는 압도적인 폭력 앞에 놓인 한 인간으로서,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법률로 물어질 수 없는 책임까지 규명하고자 죄의 심급을 구분한다. 법률에 기반하여 증명되는 행위나(범죄) 국민으로서 국가의 행위에 따른 책임(정치적 죄)뿐 아니라, 양심에 비추어 발생하는 도덕적 책임(도덕적 죄)과 인간 상호 간의 연대에 근거하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바를 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공동의 책임”¹⁷(형이상학적 죄)까지 죄의 범주를 부여한 것이다. 자기 자신까지 심문의 대상에 놓았을 야스퍼스의 고찰에 따르면, 참혹한 범죄를 ‘피한 자’는, 나아가 피해당사자인 ‘살아남은 자(superstes)’조차도 “범죄가 자행되었는데도 내가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¹⁸에서 비롯되는 형이상학적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해방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이들 가운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세대이나 젠더적·계급적 조건에 의해, 혹은 권력구조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우연에 의해 제국의 동원을 ‘피한 자’¹⁹들이 많았다. 그러나 동시에

14 카를 야스퍼스(2014), 이재승 역, 『죄의 문제』, 엘피, p. 66.

15 카를 야스퍼스(2014), p. 66.

16 카를 야스퍼스(2014), p. 69.

17 카를 야스퍼스(2014), p. 87.

18 카를 야스퍼스(2014), p. 87.

이들은 타인에 의해 추궁될 수 없는, 오직 자신의 양심과 인간 상호 간의 연대감에 근거한 죄의식을 지녔던 사람들이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고, 시민 운동으로 자리 잡기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지지기반으로 작용했지만, 그 밑바탕에 ‘피한 자’의 죄의식과 세대 의식이 깔려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죄의식은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부채를 반복적으로 재현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빈)자리를 공동체 내에 기입하였고, 또 시민운동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증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이 글은 일제 말기 동원된 또래 여성에 대하여 죄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하근찬과 박완서의 ‘일제 말기 여성 동원’²⁰ 서사에

-
- 19 익명의 심사위원은 ‘피한 자’라는 명명이 자칫 이들이 일제의 폭력을 완전히 피한 자로 이해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박완서의 표현처럼 ‘살아남은 자’로 명명하기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살아남은 자’는 피해생존자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살아남은 자’로 명명할 경우 이들 사이의 차이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 다만, 이 글에서 ‘피한 자’가 일제의 폭력을 모두 피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대적점에 놓이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 작은따옴표로 묶어서 표기한다. 각 개인의 위치와 차이를 간과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적 연대를 드러낼 수 있는 언어는 계속해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20 소설에서 일제 말기 여성 동원은 ‘처녀 공출’, ‘정신대(挺身隊, 테이신타이)’, ‘위안부’ 등의 용어로 지칭된다. 조선총독부는 「생산증강노무강화대책요강」(1943. 10. 8.)을 결정하여 신규학교 졸업자 및 14세 이상 미혼자 등의 전면적인 동원 체제를 확립하였고, 1943년부터 여자근로정신대가 조직되어 여성들을 공장에 동원하였다. 그러나 ‘1932년 상하이 사변부터 1945년 일본 패전까지 일본 육해군이 만든 위안소에서 군인·군속의 성(性)상대를 강요당한 여성’으로 정의되는 ‘위안부’의 경우 군이 여성 모집과 이송,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하였음에도 개인업자가 표면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식민지 민중은 동원 목적 및 장소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실제 피해자 가운데에도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었다가 위안소에 배치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한국에서는 식민지의 역사적 기억이 담겨있는 ‘정신대’라는 용어가 폭넓게 사용되었고, 1990년대까지도 ‘위안부’와 ‘정신대’는 혼용되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소설에서도 일본군의 성 상대가 된다는 소문이 ‘처녀 공출’,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차출된 여성이 소설에서 사라짐으로써 ‘정신대’의 실체가 무엇인지 끝내 알 수 없게 되기도 한다. 또,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었다가 위안소로 이중 동원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에 본고는 ‘처녀 공출’, ‘정신대’, ‘위안부’ 등으로 표현되는 문제를 ‘일제 말기 여성 동원’으로 포괄하여 다

주목한다. 그들의 소설 쓰기가 증언에의 소명의식의 실천이었음을 드러내고, 그것이 세대적이고 공동체적인 문제의식과 결부되어 있음을 분석해 내고자 한다. 또한 ‘피한 자’의 증언의 임무가 단지 과거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수행된 것이 아니라, 당대 담론장과 적극적으로 공명하면서 버려졌음을 밝힐 것이다. 나아가 이 글은 지금까지 서로 다른 작가군에 배치되어 있던 두 작가의 공통적 세대 의식에 주목함으로써 여성(문학)사를 준거로 한 새로운 세대 구성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이 글은 1920~30년대 초반 출생이라는 생물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며, 해방 후에는 민족·계급·젠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전쟁범죄를 고발하고 그것을 청산하려는 (초)국가적 과업을 수행한 피해자와 ‘피한 자’를 아우르는 ‘여성 동원 세대’를 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이다.

2. ‘동원-혼인’ 사이에 갇힌 민중 여성의 공동 운명: 하근찬

하근찬은 자신의 작품세계를 1969년 「낙발」을 기점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는 이 “작품 이후로는 주로 일제 말엽 소년 시절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하자면 내 소설의 제 2기로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이 글에서 하근찬은 제2기를 총결산하는 작품으로 장편소설 「산에 들에」를 꼽았다.²¹ 작가 스스로 작품 세계의 ‘제2기’라고 밝힌 1969년에서 「산에 들에」의 연재가 끝난 1983년까지 실제로 하근찬은 유년기 식민지의

루고, 필요한 경우 텍스트에 따라 ‘정신대’, ‘위안부’ 등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정신대’와 ‘위안부’ 개념의 착중에 대해서는 박정애(2019),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동원과 성노예: 공창제 정쟁과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 『페미니즘연구』 19-2, 한국여성연구소 참조.

21 하근찬(1988), pp. 9-10.

기억을 소설화했고, 일제 말기에서 6·25전쟁 이후까지 아우르는 장편소설 「야호」, 「월레소전」, 「산에 들에」 등을 연재했다. 선행 연구는 이러한 전환의 계기로 1965년 한일협정을 꼽는다. 한일협정을 둘러싼 논란은 신생 독립국가의 정체성이 안정되지 않았으며 동시에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드러냈고, 정체성을 시험받는 위기 국면에서 하근찬은 “동일한 소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다룸으로써” “집단 정체성의 불안정함을 해소하고자” 했다.²² 그렇다면 그러한 반복 속에서 일제 말기 사랑에 눈뜨기 시작한 민중 여성의 “집단 정체성” 혹은 공동 운명은 무엇이었을까.

발표 당시부터 “현대사를 문학의 영역으로 수용한 탁월한 창작”²³이라고 평가된 하근찬의 첫 장편소설 「야호」는 갑레라는 여성 인물을 통해 민족 수난사를 형상화한 소설이다. 열아홉 살 갑레는 같은 마을의 영칠과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연애를 시작했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단짝 친구 분임뿐이다. 갑레의 연애는 일제의 선전영화가 상영되던 곳에서 시작되었으나, 전쟁은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육박해 있었다. 연애가 무르익기도 전에 영칠은 징용에, 갑레와 분임은 정신대에 차출되고 만다. 차출된 처녀들이 집결된 곳에서 갑레는 정신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듣고 극적으로 탈출해 집으로 돌아온다. 이에 갑레 부친은 서둘러 딸의 혼처를 찾고, 마침 징병을 앞두고 ‘씨나 받아두려’ 신부를 찾고 있던 태석이네와 인연이 닿는다. 갑레는 첫사랑 영칠과의 약속 때문에 어떻게든 혼인을 피하려 했지만, 다시 정신대에 끌려갈 수는 없었기에 혼인을 받아들인다. 갑레는 남편 태석에게 정을 붙이고 살아보려고도 했으나 곧이어 태석도 징병에 끌려가고, 해방 후에는 영칠이 먼저 돌아옴으로써 갑레의 인생은 계속해서 소용돌이치게 된다.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영칠과 재혼을 하였는데, 뒤늦게 태석이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정작 영칠과의 새살림을 파괴한 것은 돌아온 태석이다.

22 류동규(2011), 「식민지 학교의 기억과 그 재현: 하근찬의 경우」, 『우리말 글』 51, 우리말 글학회, p. 254.

23 김병익(1973), 「작가의식과 현실」, 『문학과 지성』 1973년 봄, 문학과지성사, p. 200.

나라, 또 다른 전쟁 6·25였다. 우여곡절 끝에 정착한 새로운 가정생활마저 영철의 죽음으로 끝나고 만다.

두 번째 장편소설 「월레소전」은 제목 그대로 주인공 월레의 약전(略傳)으로, 여기서도 월레는 동네 친구인 명자, 덕심과 함께 근로정신대에 차출된다. 이번에는 도망도 못 가고 세 친구가 모두 정신대로 동원되고 마는데, 훗날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 월레는 명자, 덕심과 함께 있던 군수 공장에서 헤어져 사할린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위안부’가 된 것으로 암시된다. 해방이 되어 군수 공장에서 풀려난 명자와 덕심이는 아버지를 찾으러 동경으로 가거나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월레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다. 소설은 ‘월레소전’의 형식을 내걸고 있지만 월레가 정신대에 동원된 이후로는 월레의 삶을 그리지 못한다. 동원된 곳에서 편지가 몇 번 왔을 뿐 동원 이후 월레의 행적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소설은 남은 월레 일가를 비추며 「월레소전」이 연재되던 당시, 즉 1975년 무렵까지 전개된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에 이르러 고국에 송환 요청을 한 사할린 억류 동포 명단 가운데 “안월레(여·49·무국적)”²⁴라는 이름이 발견되면서 월레의 존재(혹은 ‘부제’)는 다시금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환기된다.

「야호」는 정신대 동원에서 가까스로 도망친 ‘피한 자’ 갑례를, 「월레소전」은 근로정신대를 거쳐 위안소로 동원된 피해자 월레를 다루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두 텍스트의 주인공들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한 자’도 비극적인 인생을 맞게 된다. 「야호」의 갑례는 또다시 끌려갈 것이 두려워 원치 않는 사람과의 혼인을 받아들이는데, 이때 갑례의 혼사가 빠르게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집의 자손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대에 나갈 아들의 종자(種子)나 받으”²⁵려 했던 시부모의 비밀스러운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4 하근찬(1973~1975), 「월레소전」(29), 『여성동아』 1975. 12., 동아일보사, p. 385. 이하 작품명, 게재지, 페이지만 표기.

25 하근찬(1970~1971), 「야호」(4), 『신동아』 1970. 4., 동아일보사, p. 445. 이하 작품명, 게재지, 페이지만 표기.

갑례는 “헤이파이상[군인-인용자]의 「시다지끼」(밑에 까는 물건-원문)가 되려 간다”²⁶ 여성 동원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결국엔 강제 동원되는 남자의 “씨를 받아”²⁷ 주려 혼인하게 된 셈이다. ‘위안부’ 동원이 군국주의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전쟁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면, 남자 집안의 “종자나 받” 아주기 위해 하는 혼인은 가부장제가 자기 영속을 위해 여성의 생식 능력을 도구화하는 것이다.

갑례가 정신대를 피하려고 혼인을 하였다면, 반대로 월레는 혼인을 피하려다 정신대에 차출된다. 명자의 이모부이자 동양척식회사 농장의 서기인 홍 주사는 일본인 지주의 소작농들을 관리하는 마을의 실질적인 권력자다. 그러니 동척 농장의 땅을 부치고 있는 월레 아버지 안 서방은 홍 주사가 월레를 후처로 달라고 해도 거절할 방법이 없다. 한편, 월레는 홍 주사의 음흉한 속내도 모르고 담임 선생님과 홍 주사의 아들 사이에서 연애 감정을 경험하며 사춘기를 통과하고 있다. 아버지가 자신을 홍 주사에게 시집 보내려 하자 월레는 학교로 도망가고, 다행히 임 선생의 도움으로 혼사는 졸업 후로 연기된다. 월레가 졸업한 뒤 안 서방은 “여자 공출” 소문을 듣게 되고, “시집간 여자는 개않다”²⁸라는 말에 홍 주사와의 혼사를 서두른다. 그러나 이번엔 홍 주사가 명자 모친(처형)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느라 혼사가 지연된다. 이후 안 서방과 홍 주사가 혼사를 다시 진척시키려 할 즈음 월레에게 정신대 소집 영장이 나오고 만다.

홍 주사와의 혼인이 예정되어 있던 월레는 줄곧 멀리 도망치려는 생각을 했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쓰루미 선생에게 “시집 가라 카면 어디 먼데로 도망가빠릴 끼라”²⁹라고 말하기도 하고, 졸업 후에는 임 선생에게 동경 가는 차비를 묻기도 했다. 그러나 월레는 ‘동원-혼인’ 사이에 있

26 「야호」(3), 『신동아』 1970. 3., p. 440.

27 「야호」(4), 『신동아』 1970. 4., p. 444.

28 「월레소전」(21), 『여성동아』 1975. 4., p. 227.

29 「월레소전」(17), 『여성동아』 1974. 12., p. 262.

는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달아나지 못한다. 쓰루미 선생은 월례에게 “정말 집을 떠나 어디로 갈 생각이면 그렇게 무작정 아무데나 갈 게 아니라…… 저…… 내지(内地, 일본 본토-원문)로 건너가서 공장에 들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한다. “군수(軍需) 공장에 가서 일하면 「텐노오헤이까」(천황폐하)에게 「주우기」(忠義)를 다하는 일도 되고, 돈도 벌고, 좋”다는 것이다.³⁰ 쓰루미가 말하는 것은 바로 “총후 국민의 여러가지 총동원태세” 가운데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는 “소녀 산업전사”³¹이다. 그런가 하면 임 선생은 월례를 걱정하는 마음에 안 서방에게 월례의 도망 계획을 귀띔하고, 이에 월례는 떠나 보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붙잡힌다. 쓰루미 선생과 임 선생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월례의 ‘도망’의 기도는 ‘동원-혼인’ 사이의 폐쇄회로에 붙들린다.

이러한 까닭에 월례는 정신대 소집 영장을 받고서도 슬퍼하기보다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

월례는 그저 얼떨떨할 따름이다. 웬지 어머니처럼 도무지 비통해지지가 않는다.

오히려 이것 차라리 잘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슬그머니 들기도 한다.

그렇잖아도 어디로 훌쩍 떠나버리고 싶던 차인데 말이다.

『우야꼬. 야가 예사대이, 아이고, 얄궂어라- 지한테 처녀 공출이 나왔는데도 겁나지 않다니……』³²

월례는 막상 떠나려 하니 “씩 마음에 당기는 것은 아니지만 좌우간, 이제 그놈의 홍주사, 징그러운 개눈한테 시집갈 염려는 없게 된 것”이니 “그

30 「월례소전」(17), 『여성동아』 1974. 12., p. 263.

31 「월례소전」(17), 『여성동아』 1974. 12., p. 264.

32 「월례소전」(23), 『여성동아』 1975. 6., p. 228.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생각³³을 한다. 정신대 징집을 통해서라도 고향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건 월레만이 아니다. 단짝 친구 명자는 어머니와 이모부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부터 아버지가 있는 동경으로 떠나고 싶어 했다. 명자와 월레는 동경으로 떠날 궁리를 했지만, 농촌 마을에서 나고 자란 여자아이들은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덕심이와 월레가 정신대에 차출되어 떠나게 되니, 명자는 소집 영장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신대에 자원한다. “우리 서이가 기러기”처럼 “정답게 어디로 훨훨 날아”³⁴갔으면 좋겠다던 월레의 바람은 “친구 따라 데이신파이”³⁵ 가는 것으로 실현되고 만다. 비슷한 장면은 「야호」에서도 발견된다. 갑례와 분임에게 정신대 영장이 나와 두 집이 울음바다가 되었을 때에도 분임은 “어찌된 영문인지 오히려 히죽히죽 웃고 있었다”. 분임이의 속마음인즉, “까짓것 나같은 건 백년 살아봐야 일본이나 만주 구경하겠나. 이런 기회에 기차도 좀 실컨 타보고, 일본이든지 만주든지 아니면 남양군도라도 좋다, 그러면 배도 실컨 타겠지, 세상 구경이나 원없이 해보자”³⁶라는 것이다. 양쪽 부모가 딸들을 빼내기 위해 애쓸 때에도 “분임이가 산통을 다 깨고 말았다”. “만날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느니 “나가서 돈벌이나 하”겠다는 것이다.³⁷ 이러한 장면은 여성들의 ‘도망’이 제국의 강제 동원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근찬은 자기 문학의 2기를 결산하는 소설로 「산에 들에」(『현대문학』, 1981.11~1983.8)를 꼽으며, “「산에 들에」가 다른 작품들과 다른 점은 주인공들이 도망치는 점”³⁸이라고 했다. 실제로 「산에 들에」에서 강제 징용에 차출된 황달칠은 이송 중에 도망치고, 자신을 덮치려 한 일본군 병사를 죽여

33 「월레소전」(24), 『여성동아』 1975. 7., p. 318.

34 「월레소전」(21), 『여성동아』 1975. 4., p. 224.

35 「월레소전」(24), 『여성동아』 1975. 7., p. 319.

36 「야호」(2), 『신동아』 1970. 2., p. 466.

37 「야호」(3), 『신동아』 1970. 3., p. 466.

38 하근찬(1997), 「수난시대, 산에 들에」, 엔터, p. 262.

수배 대상이 된 무너는 종적을 감춘다. 그러나 강제 동원의 위기에 놓인 봉례와 순금의 삶은 기존의 소설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봉례 부친 황달수가 ‘여자 공출’ 소문을 듣고 딸의 혼인을 추진할 때, 봉례는 두만가와 연애를 하고 있었다. 「야호」, 「월레소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만주로 함흥으로 떠돌다 돌아온 황달철이 여자정신대란 곧 일본 군인들의 ‘갈보노릇’을 시키는 것이라 알려줌으로써 황달수는 혼사를 더욱 서두를 수 있었다. 신랑 될 사람 역시 “징병해당자”로 “언제 징집영장이 나올지 모르는 터이라, 전장에 나가기 전에 장가를 들여 씨라도 받아놓자는 속셈이었”³⁹기에 혼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봉례는 그 집의 씨받이로 시집가게 된 셈이었다.”⁴⁰ ‘도망가는 민중’을 그리고자 했다는 소설에서조차 봉례의 운명은 ‘씨받이’로 귀결되고 순금은 정신대에 동원되어 소식이 단절될 때, 일제 말기 농촌 여성들의 도망은 동원과 혼인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실패한다. 이것이 바로 갑례, 월례, 봉례가, 그리고 그녀들의 단짝인 분임, 명자, 덕심, 순금이 처해 있던 공동 운명, 즉 민족수난사의 반복과 재구성을 통해 발견된 여성 동원의 피해자와 ‘피한 자’를 아우르는 현실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근찬의 일련의 소설에서 여성의 사랑이나 연애 감정이 젠더 규범에 따른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여자들을 속박하는 ‘동원-혼인’이라는 운명의 굴레가 ‘제국-민족’의 문제로 단순하게 치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제국과 식민지의 권력관계는 젠더적 은유로 곧잘 나타난다. 이러한 유비 관계에서 제국 남성의 성적 대상이 된 식민지 여성의 문제는 여성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 혹은 식민지 남성의 문제로 이해되곤 한다. 식민지가 ‘제국에 침해된 민족의 여성’으로 유비되는 표상체계에서 동원과 혼인은 결코 동등한 위상을 지니지 않는다. 동원이 제국 남성의 성적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39 하근찬(1981~1983), 「산에 들에」(4), 『현대문학』 1982. 2., 현대문학사, p. 154. 이하 작품명, 게재지, 페이지만 표기.

40 「산에 들에」(4), 『현대문학』 1982. 2., pp. 154~155.

민족 남성과의 혼인은 순혈 민족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근찬의 소설에서는 동원과 혼인 어느 쪽이든 여성의 삶을 침해하는 강제된 폭력으로 나타난다. 하근찬의 민족수난사는 여성의 삶을 민족의 재생산을 위해 도구화하는 데 동조하지 않는 것이다. 일제 말기 민중 여성들이 민족(국가)의 위기로 인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동원-혼인’ 사이에 갇혔다는 것,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민족수난사의 반복을 통해 그가 발견해 낸 10~20대 민중 여성들의 수난의 핵심이었고, 그녀들의 공동 운명이었다.

하근찬의 소설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일제 말기 여성 동원의 문제를 단절된 과거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통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월레소전」은 월레가 사할린에 억류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뚜렷한 결론 없이 갑작스레 끝이 난다. 이러한 결말은 1970년대 초중반 일제의 강제 동원이 초래한 미해결된 비극으로서 사할린 동포 문제가 논의되고 있던 당대적 문제의식을 투영한 것이다.⁴¹ 「월레소전」

41 물론 사할린 잔류 조선인 송환 문제는 해방기부터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1947년 사할린 동포에 대한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고, 1948년 정부수립 후 귀환 운동은 공식적으로 이어졌지만, 냉전의 제약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종전 후 소련점령지구 일본인 및 조선인 송환은 미국과 소련간의 협정으로 규정되었고, 이때 송환대상자는 일본인 포로, 일본인(희망자), 북위 38도 이북 출신 조선인 1만 명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해외 조선인들은 ‘해방국민’이라는 모호한 국적을 부여받은 상황이어서 귀환의 주체도, 교섭의 대상도 되지 못했다[황선익(2012), 「사할린지역 한인 귀환교섭과 억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pp. 445-453]. 한편, 사할린에서 일본인 인양은 1949년 일단 마무리되었으나, 일소공동선언(1956)이 체결됨으로써 1957~59년 사이 일본인 여성과 조선인 남편 및 그 자녀가 일본으로 돌아왔다. 이때 조선인은 정식 인양자라기보다 ‘부수적’ 결과였고, 일본인과 가족관계가 없는 조선인은 일본 입국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일본으로 돌아온 조선인들이 ‘사할린 귀환 재일 한국인회’를 결성하였고, 귀환 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사할린 동포 문제가 논의되지 않아 귀환 운동은 진척이 되지 못했으나, 1970년대 초·중반은 다시금 송환의 희망과 교착이 이어진 시기였다. 1960~70년대 국교가 없던 한국과 소련을 일본 정부나 민간이 중개하여 잔류 조선인 송환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한국과 일본이 조선인 송환 및 정착에 따른 비용을 서로 미루고 있었고, 한국은 공산권에서 귀환하는 동포를 이데올로기 선

이 연재되던 1973년부터 1975년 사이의 사정을 살펴보면, 1973년 초 일본인 아내를 두었던 홍만길씨 일본으로 귀환하면서 사할린 교포의 사정과 귀국 희망자 명단을 전했고,⁴² 곧이어 국내 언론은 소련이 사할린 동포 송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보도를 내보냈다.⁴³ ‘재일귀환한국인회’, ‘대구사할린억류교포귀환촉진회’와 같은 민간단체, 그리고 1973년 모스크바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을 매개로 사할린 동포와 고국의 국민/가족 사이에 애타는 서신이 교환되었고,⁴⁴ 1973~74년 동안 사할린 동포의 생존자·사망자 명단이 여러 차례 전해지면서 동포 송환의 국민적 바람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일본을 경유한 송환 협상의 경과와 귀환 희망자 명단이 여러 차례 보도되었지만, 1975년부터 교섭의 흐름이 반전된다. 소련이 사할린 교포 귀환 문제는 일본과 논의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과 논의할 문제라고 한 것이다. 외교에 의존하던 귀환 문제는 1975년 12월 1일 사할린 교포를 원고로 한 ‘사할린 교포 귀환 소송’이 제기됨으로써 법적 투쟁으로 전환되기에 이른다.⁴⁵

이 시기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할린 동포들은 대개 “일제말 징용 또는 여자정신대로 끌려간 후 근 30년간 대부분 소식이 끊겨 있었”던 이들이었

전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교섭을 통한 송환 문제는 1970년대 내내 진척을 보지 못했고 법적투쟁으로 옮겨갔다. 1950~70년대 사할린 동포 송환 문제에 관해서는 玄武岩(2010), 「サハリン残留韓国・朝鮮人の帰還をめぐる日韓の対応と認識: 1950~70年代の交渉過程を中心に」, 『同時代史研究』 第3号, 東京: 同時代史学会, pp. 35-50.

42 「사할린 억류 30년만에 해방 홍만길 씨 일본 귀환 “교포 4만, 귀국 희망 3천명”」, 『경향신문』 1973. 2. 3.

43 「소(蘇), 사할린 교포 송환 용의」, 『조선일보』 1973. 6. 16; 「「사할린」 교포 송환에 대한 소련 측의 호의적 반응」, 『경향신문』 1973. 6. 18.

44 「주인 찾는 사할린 교포 편지」, 『동아일보』 1973. 6. 26.; 「주인 잃은 「사할린 망향」 구개월 만에 조카손에」, 『동아일보』 1973. 7. 17.; 「사할린 동포, 2세 편에 애타는 전갈 “조국은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니까” 9천km 모스크바 날아와 U대회 우리선수단에 호소」, 『경향신문』 1973. 8. 30.

45 「「외교의존」서 「법정투쟁」으로 열기 띤 사할린 교포귀환운동」, 『동아일보』 1975. 12. 3.

다.⁴⁶ 그렇다면 「월레소전」의 갑작스러운 결말, 즉 근로정신대로 차출된 월레가 사할린으로 이중 동원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삼십 년이나 귀향을 바라며 무국적자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은 작가가 식민지 강제 동원의 문제를 1973~75년의 시점에서 가장 ‘현재적인’ 문제로 서사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진행 중인 문제를 서사화하였기 때문에 「월레소전」은 제대로 된 결말을 맺지 못한다.⁴⁷ 다시 말해 월레의 귀환이든 죽음이든 주인공 인생의 귀결을 보여주지 못한 채, 월레 모친이 달님에게 딸의 무사 귀환을 비는 장면으로 ‘월레 없는’ 「월레소전」이 막을 내리는 것이다. 「월레소전」의 ‘미완’의 결말은 강제 동원의 문제가 결코 단절된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점과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염원을 드러낸다.

46 「사할린 생존 교포 5백 53명 추가 판명」, 『조선일보』 1973. 12. 9.

47 반면, 서승희는 “사할린은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이 아니므로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소설에서 월레가 홋카이도 공장에서 사할린으로 이주한 이후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였을 가능성도 강력하게 암시”되는 데 문제를 제기한다. 서승희는 월레가 사할린에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결말은 “전시 성폭력은 민족적 수난을 가장 강렬하게 입증하는 증거로서 빈번하게 소환되었으나, 그것이 지닌 트라우마적 성격 때문에 이를 대면하는 것 그리고 재현하는 것, 심지어 언급하는 것조차 어떤 공포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즉 “어찌피 상술할 수 없는 월레의 탈향 이후를 소련 영토 ‘사할린’이라는, 남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지평에 둔 것은 재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알리바이”라는 것이다[서승희(2022), 「‘테이신타이(挺身隊)’로 동원된 여성의 포스트/식민 현실과 재현 난제」, 『어문연구』 50-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 261, 273-274].

그러나 1942년 9월 3일 일본 육군성 보고서에는 월레가 이송된 가라후토(樺太, 사할린)지역에 위안시설 10개 설치계획이 나오며, 일본의 ‘위안부문제와아시아여성기금’은 이를 정부 자료로서 소개하고 있다. 위안소 수와 분포 지역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군이 직접 설치 및 운영한 것 외에 민간에 위탁하거나 민간 시설을 특정 시간에 전용하는 형태의 위안소도 존재했기 때문에 학계는 위안소의 수가 육군성 보고서에서 언급된 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월레가 사할린 억류 동포로 설정된 것을 전시성폭력이라는 재현의 난제를 회피하기 위한 ‘알리바이’라고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육군성 관련 자료는 아시아여성기금 홈페이지 ‘위안소와 위안부의 수’ 참조, <https://www.awf.or.jp/1/facts-07.html>(검색일: 2025. 2. 20.)

3. 동원 기억의 재의미화와 원한의 세대적 확장: 박완서

하근찬이 일제 말기에서 6·25전쟁으로 이어지는 민족수난사를 반복하면서 1970~80년대 초반을 통과하였다면, 박완서는 1970년 여성동아 장편 소설 공모에 『나목』이 당선되어 다소 늦은 나이에 소설가로 데뷔했다. 박완서는 등단 직후부터 「한발기」(1971~73), 「도시의 흉년」(1975~79) 등 장편 소설을 연재하는 한편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1976), 『배반의 여름』(1978) 등 단편집을 출간하며 “신인답지 않”은 필력과 “대중성”⁴⁸을 동시에 보여준 작가로 평가되었다. 하근찬과 마찬가지로 박완서의 소설 또한 “인간 박완서의 체험이 …… 작가 박완서의 체험으로 흠없이 연속”된 결과로서 해방 전 후부터 6·25를 거쳐 1970년대 이르기까지 시대상과 그 속의 삶을 그려내었으며, 이 체험의 사실성이 ‘천의무봉의 글쓰기’의 근거로 이해되었다.⁴⁹ 그러나 하근찬이 민족수난사 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박완서는 오히려 공식 역사에 억압된 가족사, 이를 테면 등단작 『나목』이나 1981년 이상문학상 수상작 「엄마의 말뚝 2」에서 잘 나타나듯 공산군 치하의 서울에 남아 있었던 이들이 경험한 6·25의 참상을 드러내는 데 힘썼다. 박완서 문학에는 작가 스스로 “다시 쓸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거의 안간힘쓰듯이” 별려도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원체험으로서 6·25가 놓여 있었고,⁵⁰ 이와 더불어 “1970년대 한국의 현실을 사는 한 정직한 소시민의 자기성찰과, 그 소시민적 한계를 넘어서려는”⁵¹ 물질주의에 대한 작은 응전⁵²이 있었다.

48 김윤식(1988), 「천의무봉과 대중성의 근거: 박완서론」, 『문학사상』 1988. 1., 문학사상사, p. 158.

49 김윤식(1988), p. 158.

50 박완서(1981), 「수상소감 내 마음의 매듭을 풀었으면」, 『문학사상』 1981. 10., 문학사상사, p. 248.

51 백낙청(1979), 「사회비평 이상의 것」, 『창작과비평』 1979년 봄, 창작과비평사, p. 351.

52 김주연(1973), 「순응과 탈출: 박완서의 근작 2편」, 『문학과지성』 1973년 겨울, 문학과지

이처럼 1970~80년대 박완서 소설은 6·25 전쟁의 재현과 당대의 속물주의적 세태에 집중되었으나, 유년기의 식민지 경험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1980년 9월 발표된 자전적 소설 「엄마의 말뚝」에는 “여자정신대의 공포”⁵³가 ‘나’의 가족을 엄습했던 일제 말기 상황이 드러난다. 엄마는 ‘나’를 신여성으로 키우기 위해 억척스럽게 서울에 생활터전을 마련했지만, 막상 여자정신대 징집 소문이 돌자 ‘나’를 시집보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한다. 그도 그럴 것이 시골에는 이미 징용을 피하려다 순사의 창끝에 화를 당했다는 피비린내 나는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시골 우리 면(面)에서도 면서기가 그걸 가지고 집집마다 돌면서 쌀을 감춰 뒀음직한 데를 함부로 찌르다 어떤 벋짚더미 속에서 피와 살이 묻어나왔다는 참혹한 소문도 엄마는 가져왔다. 징용을 피해다니던 남자가 그 속에 숨어 있다가 그런 변을 당했다는 거였다.⁵⁴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2000년대 이후 박완서가 여러 지면을 통해 반복적으로 말했던 일제 말기 또래 여자아이들을 정신대 공포로 몰고 간 소문, 즉 정신대를 피하려다 “쌀가마 대신 창에 찢린 소녀 얘기”⁵⁵가 「엄마의 말뚝」에서는 징용을 피하려던 남자로 나타난다는 것이다.⁵⁶ 박완서 스

성사.

53 박완서(1980), p. 421.

54 박완서(1980), 「엄마의 말뚝」, 『문학사상』 1980. 9., 문학사상사, p. 420.

55 박완서(2000), p. 20.

56 배상미 또한 1990년대 박완서의 식민지 기억의 복원을 논하는 글에서 해당 에피소드가 「엄마의 말뚝」에서는 남성으로 나타남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1981년 초반 당시 ‘위안부’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추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배상미는 “박완서가 자신의 한국전쟁 경험을 서술하는 것처럼, 이 강제동원의 상황 속에서 희생된 여성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을 ‘증언의 의무’로서 논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소설들에서 제대로 언급되지 못한 이유는 1990년대 이전에 ‘위안부’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할만한 토양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

스로 살아남은 자의 증언의 의무를 말하며 “내 소설 중에 여러 번 반복되고 변형되어 나타난”⁵⁷다고 했던 이 소문을 추적해 보면, 장편소설 「미망」에 이르러 정용을 피하려던 남자가 정신대를 피하려는 여성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망」은 1985년 3월부터 연재가 시작되었으나, 연재 도중 작가의 아들이 죽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여 1988년 10월부터 1989년 4월 까지 휴재기를 가진 뒤 1990년 5월에야 마무리된다. 「미망」은 구한말에서 6.25전쟁까지 개성 거상 일가의 몰락을 다룬 소설로 일제 말기 정신대 동원 소동은 마지막 연재분에 등장한다.

양력으로는 해가 바뀌었지만 음력으로는 아직 설달 그믐께인 어느날이었다. 동구 밖에 순사와 면서기 일행이 나타났다. 어느때보다 많은 일행이었고 먼저 발견한 마을 사람들에 의해 짐짐마다[집짐마다의 오식-인용자] 연통이 되었다. 행여나 음력설을 쇠려고 떡살이나 엿을 골 잡곡을 담은 집이 있나 조사가 뻔질날 때였다. 그들 중 앞장선 이가 높이 쳐든 장대끝의 쇠불이가 순사의 칼빛보다 훨씬 더 살벌해 보였다. 두런대는 불안한 기미에 경순이는 자동적으로 몸을 숨겼다. 사람을 찾아내려는 게 아니라 곡식을 찾아내려는 사람들이라는 걸 구별할 능력이 없었다. 느닷없이 들어닥치는 관공서 사람은 대개 두가지 목적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어려운 문벌법까지 가르칠 필요가 없었다. (중략)

태남이네는 마을 한가운데였는데도 그들은 뭐가 끌어당긴 것처럼 제일

나 공론화 전까지 ‘위안부’ 문제가 식민지의 피해이면서 동시에 외설적으로 소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신대 동원을 피해 벗겼 속에 숨는 정도의 에피소드를 제작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해석은 작가가 2000년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증언의 의무’를 1980년에 발표된 작품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결과를 빚는다. 후술하겠지만 본고는 1990년대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와 함께 박완서의 일제 말기의 기억이 재발견·재의미화되어 소설로 형상화되었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본다[배상미(2024), 「망각된 식민지시기 기억의 복원: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 『여성문학연구』 62, 한국여성문학회, p. 31 각주 49, 33].

57 박완서(2000), p. 20.

먼저 들이닥쳤다. 광속, 마루밑 농막에서 산적한 짚단 등을 예리한 눈빛으로만 훑어나가던 앞장선 순사가 경순이가 숨은 갈잎난가리 앞에서 음험하고 자신있는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숨죽이고 뒤따르던 혜정이가 안돼, 하면서 가로막은 것과 그의 장대가 난가리를 깊숙이 찌른 건 거의 동시였다. 난가리 안에서도 비명이 들리고 그 역시 놀라 급히 빼낸 장대 끝의 쇠붙이엔 살점과 선혈이 묻어났다. 혜정이는 그자리에 까무라치고 태남이가 미친듯이 갈잎나무를 파내고 경순이를 들어냈다. 배창자가 터진 경순이는 양순한 짐승이 상한 것처럼 애처롭게 신음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누군가가 무명형집을 찢어주어 상처를 틀어막았다. 달구지를 대주는 사람도 있어서 태남이는 딸을 부둥켜안고 달구지에 올라탔다. 그러나 개성까지 가기 전에 숨진 딸을 안고 슬프게 울며 되돌아왔다. 그동안에 그들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마을은 덕택에 그날의 수탈을 면했다.⁵⁸

혜정은 마을에 들어온 순사와 국방복의 사내가 경순을 유심히 살피는 것을 보고 더럭 겁을 먹었다. 당시는 “징용 징병으로 끌려가기 전에 손이라도 봐놓고 싶어한 신랑 쪽 욕심과 딸을 정신대로 빼앗기기 전에 치우고 싶은 색시 쪽의 위기감이 궁합이 잘 맞아 조혼이 대유행”⁵⁹하던 시기라 마을에 과년한 처녀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다 큰 경순이 머리탱기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으니 순사의 눈에 띄었던 것이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자는 심정으로 혜정은 “이애는 반편이”라 “오죽해야 시집도 못보내”겠다고 돌려댔다. 이에 순사는 “당장 벌레 씹은 얼굴을 했”으나 “국방복의 사내는 능글능글 웃으면서” “아 소오까, 데모 데이신파이와 가마와나이조(아 그래, 허지만 정신대는 상관 없어).”라고 답했다.⁶⁰ 그날 이후 혜정은 경순에게 순사가 나타나면

58 박완서(1985~1990), 「미망」, 『문학사상』 1990.5, 문학사상사, pp. 302-303. 이하 작품명, 게재지, 페이지만 표기.

59 「미망」, 『문학사상』 1990. 5., p. 300.

60 「미망」, 『문학사상』 1990. 5., p. 300.

벗짚 속에 숨은 훈련을 시킨다. 인용문은 마을에 순사가 나타나자 경순이 반사적으로 몸을 숨기는 장면이다. 순사들은 사람이 아니라 곡식을 찾으러 왔지만, 경순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도 이를 구별할 수는 없었다. 순사는 경순이 숨은 벗짚 속으로 쇠붙이가 붙은 장대를 찔러 넣었고, 경순은 순사의 창에 찔려 죽는다.

박완서는 ‘쌀가마 대신 창에 찔린 소녀 얘기’를 지적장애가 있는 경순의 이야기로 변주함으로써 일제 말기의 여성 동원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혜정이 순사의 눈빛에서 공포를 느낀 날, 그녀는 조카 경우와 이 일을 논의했다. 그때 경우는 “정신대를 뽑는 명목이 간호부나 군수품공장 여공으로 노력봉사 시키겠다는 건데 병신을 데려가보세요. 정신대가 그게 아니란 게 담박 탄로가 날텐데 그약은 놔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⁶¹라고 답하며 혜정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국방복의 사내는 정신대 여성에게는 지적 능력이 상관없다고 하였다. 작가는 이 장면을 통해 일본제국의 군국주의가 여성을 오직 성적 도구로 취급하였음을 고발한다. 공권력에 의한 정신대 동원이 기만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런 기만 뒤에서 여성이 성적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더하여 여기에는 제국의 폭력적인 통치로 인한 피해를 그것이 직접적으로 초래한 결과에만 국한할 수 없다는 작가의 시각이 잠복해 있다. 설령 제국의 통치자들이 사람을 해칠 목적이 아니었고 지레 겁을 먹은 식민지민의 행동이 비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통치 당국의 누적된 억압과 폭력이 빚은 결과라는 것이다.

1993년 추석을 맞이하여 일간지에 실은 에세이 「사금파리 동무야 지금 어디때…」(이하 「사금파리」로 약칭)에 이르면 일제 말기 여성 동원이 작가 또래 여성들의 일이었다는 인식이 좀 더 직접적으로 표출된다. 유년시절 작가는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방학 때마다 고향에 내려와 친구 갑희와 함께 지냈는데, 1945년 해방 직전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갑희는 정신

61 「미망」, 『문학사상』 1990. 5., p. 301.

대를 피해 벌써 시집을 가버리고 없었다. 갑희가 겨우 열다섯 살에 신의주로 시집을 가버린 뒤, 갑희 엄마는 또래 친구였던 박완서를 보고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작가는 그런 기억을 잊고 지냈는데, 재작년 중국 여행 중에 압록강에서 탄 유람선이 신의주 가까이 가자 “네[갑희-인용자]가 겨우 열다섯에 시집간 고장을 내 나이 육십에 바라다만 보는 게 서럽고 억울”해서 울었다고 전한다.

재작년에 중국을 여행한 적이 있다. 단둥에서 압록강 유람선을 탔는데 대안의 육지가 신의주라고 했다. 신의주쪽으로 소리치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리까지 배가 접근해 갔다. 배에는 중국인과, 중국 속의 조선족과, 남한사람들이 섞여서 타고 있었는데 비슷비슷하게 생긴 사람 중에서 누가 남한 사람이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신의주를 바라보는 남한 사람의 표정엔 만감이 교차하고 드디어는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하고 동행한 역사학자는 뱃전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흔들며 소리내어 흐느꼈다. 마침내 나도 울었다. 우리의 서럽고 비통한 근세사를 운 게 아니다. 네가 겨우 열다섯에 시집간 고장을 내 나이 육십에 바라다만 보는 게 서럽고 억울했을 뿐이다. 너는 아직도 신의주에 사는? 너도 시방 달을 보고 있는? 물어볼 데라곤 아파트 숲에 가린 추석달 밖에 없구나.⁶²

줄거리에서 이미 확연히 드러나듯, 이 글은 “기억을 꾸미거나 다듬는 짓을 최대한으로 억제”⁶³했다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 (이하 『싱아』로 약칭)의 정신대 동원을 피해 시집간 친구 이야기나, 「그 여자네 집」(1997)의 압록강 유람선에서 신의주를 바라보며 통곡하는 만득이의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싱아』의 ‘나’가 1944년 겨울방학에 귀향했을 때, 고

62 박완서(1993), 「사금파리 동무야 지금 어디메…」, 『경향신문』 1993. 9. 28.

63 박완서(1992), 「작가의 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

향은 ‘쌀가마 대신 창에 찢린 소녀 얘기’와 같은 흥흥한 소문으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여성 동원은 소문에 그친 것이 아니었고, 고향의 친구들이 조혼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나’가 고향에 내려가자 딸을 “시집 보낸 소꿉동무 엄마가 나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다며 서술자는 사후적 시점에서 “내 나이에 시집을 가다니. 그때 나는 겨우 열네 살이었다”라고 회고한다.⁶⁴

「그 여자네 집」에서 정신대 소동은 자전적 인물인 ‘나’보다 몇 살 위인 곱단이에게 벌어진다. 고향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아끼던 만득이와 곱단이의 연애는 1945년 봄 만득이의 징병으로 비극으로 치닫게 된다. 만득이는 살아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몇 사람씩 배당을 받은 면사무소 노무과 서기들과 순사들이 과년한 딸 가진 집을 위협도 하고 다짜고짜 끌어”⁶⁵간다는 소문이 돈다. 그리고 박완서의 소설에 자주 출몰하는 일제 말기의 흥흥한 소문, ‘쌀가마 대신 창에 찢린 소녀 얘기’가 곱단이가 마을에도 들려온다. 이에 곱단이는 신의주에 있는 중년 남자에게 급히 시집가고, 해방 후 돌아온 만득이는 순애와 혼사를 치른다. 문제는 순애가 곱단이와 만득이의 연애를 다 아는 같은 마을 사람인지라 평생 남편의 마음을 오해한 것이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압록강 유람선에서 만득이가 통곡한 일이다.

우리가 작년에 중국여행을 갔을 적에도 얼마나 내 오장을 뒤집었다구요. 속 모르고 따라간 나도 배알 빠진 년이지만. 백두산 구경하고 나서, 단둥인가 어디서 배 타고 북한 땅 가까이까지 가보는 압록강 유람선 관광이라는 걸 했는데, 정말 저쪽 북한 땅 강가에 놀이 나온 아이들까지 보이게 배가 가까이 가니까 나도 마음이 좀 이상해집디다. 그냥 뱃놀이를 편하게 즐기

64 박완서(1992),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p. 165.

65 박완서(1997), 「그 여자네 집」, 『13월의 사랑』, 예감, p. 22.

는 건 다 중국사람들이고,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지는 건 다들 남한 사람들 이더라구요.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 영감은 별안간 뱃전에도 고개를 떨구고 소리 내어 엉엉 울지를 았겠수. 머리가 허연 늙은이가 온몸을 들먹이면서. 분단의 슬픔이라구? 아이구, 그게 아니라 거기서 보이는 땅이 신의주였어요. 곱단이 넌 사는 데가 땅을 듯, 땅을 듯, 땅지는 았으니까 미치겠는 거지 뭐.⁶⁶

이 장면은 에세이 「사금파리」에서 ‘나’가 친구 갑희를 떠올리며 우는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 에세이에서 신의주를 바라보며 울던 작가는 소설에서 만득이가 되어 이번에는 갑희가 아니라 “곱단이가 탄 데로 시집 가면서 느꼈을, 분하고 억울하고 절망적인 심정”⁶⁷에 운다. 그런데 「그 여자네 집」에 이르러 이 울음은 더 이상 사적인 감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만득이는 자신의 울음이 곱단이가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는 직접 당한 피해자의 원한만이 아니라 동원을 피하기 위해 삶의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했던 ‘피한 자’의 한까지 제국주의에 의한 희생으로 셈해져야 한다고 말하며, 여성 동원의 문제를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동원의 대상이 되었던 또래 여성 전체의 문제로 확장한다. “강도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얼떨결에 십층에서 뛰어내려 죽었다고 강도는 죄가 없고 자살이 되”⁶⁸나는 것이다. 이로써 박완서의 뇌리에 오래 남아 있었던 일제 말기의 흉흉한 소문은 ‘피한 자’와 피해자를 아우르는 동원 세대 전체의 희생을 대표하는 것으로 의미화된다.

박완서가 살아남은 자의 증언의 의무로서 소설에 반복했다는 ‘쌀가마 대신 창에 찢린 소녀 얘기’를 추적해 보면, 확실히 작가는 1990년대에 이르러 여성 동원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전술했

66 박완서(1997), p. 27.

67 박완서(1997), p. 29.

68 박완서(1997), p. 30.

듯, 『싱아』와 거의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는 1980년 작 「엄마의 말뚝」에서는 흥흥한 소문의 주인공이 징용을 피하려던 남성으로 나타난다. 이와 유사하게 「그 여자네 집」과 1984년 발표된 「저녁의 해후」(『현대문학』, 1984.3)를 교차해 읽어볼 수도 있다. 「저녁의 해후」의 ‘나’는 조카딸의 선 자리에 갔다가 오래전에 혼담이 오갔던 고등 여학교 시절 친구의 오빠를 재회한다. 남한 땅에서 고향 사람을 만난 그는 ‘나’에게 함께 고향 음식을 먹자고 하고, 고향 가까운 임진각에도 같이 가자고 한다. 그의 동생이자 ‘나’의 동창이 북쪽 땅에 남아있는 터라 지척에서도 갈 수 없는 고향 땅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매우 안타깝게 그려진다. 임진각에서 고향을 바라보며 비분강개하는 「저녁의 해후」의 그는 압록강 유람선에서 신의주를 바라보며 통곡하던 「그 여자네 집」의 만득이의 모습을 강하게 환기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저녁의 해후」에서 ‘나’와 그 사이의 혼담이 파기된 데에는 일제 말기라는 시대적 어둠이 그리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이 소설에서 두 사람의 혼담이 깨어진 건 단지 궁합이 안 맞다는 이유였고, “이듬해 그가 학병으로 끌려감으로써 점괘의 영검함이 생생하게 입증까지 되고 보니” 그 사건은 ‘나’에게 그리 큰 상처를 남기지 않았다.⁶⁹ 훗날 재회한 그는 “궁합이 안 좋은 혼처를 피하고 그후 제각기 좋은 사람 만나 여지껏 행복하게 살아왔으면 된 거”⁷⁰라며 지난 인생에 대한 나름의 만족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 여자네 집」의 만득이는 학병에 나가게 되어 곱단이와 안타깝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땐 곱단이가 정신대를 피해 이미 시집을 가버린 후라 두 사람은 영영 어긋나게 되었다. 「그 여자네 집」에서 제국의 식민지 청년 동원이 연인의 사랑을 비극으로 만들어 버렸다면, 「저녁의 해후」에서 학병 동원은 그저 ‘나’의 입장에서 ‘화’를 피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 이 소설은 여성 동원 문제는 누락한 채 분단의

69 박완서(1984), 「저녁의 해후」, 『현대문학』 1984. 3., 현대문학사, p. 252.

70 박완서(1984), p. 259.

아픔이라는 주제만을 선명하게 드러낸다.⁷¹

박완서에게 여성 동원의 문제는 1990년대 담론장에서 재발견되고 새롭게 의미가 부여된 기억으로 보인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로 시작된 동구권의 몰락과 1990년대 신자유주의 본격화 등 세계질서의 변화는 분단 문제와 자본주의 하의 속물성을 주요 화두로 삼았던 박완서에게 “1990년대를 향한 정치적 발언”⁷²을 추동하는 배경이 된다. 특히 김영미는 1990년대 표출된 박완서의 세대 감각의 배경을 거대 이데올로기 담론에서 벗어나 미시사적 문제에 주목하게 된 시대적 경향에서 찾는다. 1987년 철학적 민주주의의 달성과 탈냉전의 조류 속에서 기존의 집단적 정체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화적 세대론이 부상하게 된 것이다. “세대론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1990년대에 이르러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일어난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격변의 시대를 겪어낸 전전세대로서 박완서는 이제 자신의 세대적 정체성에 기반한 발화를 염두에 두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해 채택된 형식이 바로 자전적 소설이다.⁷³ 『싱아』에 나타난 일제 말기의 시대상은 중일전쟁부터 6·25전쟁까지 관통한 “시대를 잘못 만난 세대”로서의 정체성이 재소환한 기억인 셈이다.

박완서에게 세대적 정체성을 재구성하게 했던 1990년대적 기류, 곧 세계사적으로는 탈냉전 체제의 형성과 국내적으로는 제도적 민주화의 달성

71 그런 점에서 에세이 「사금파리」가 『싱아』와 「그 여자네 집」의 원체험이라기보다 발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싱아』에서 「그 여자네 집」으로 문제의식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는 글이라고 보는 게 합당해 보인다. 이 글은 신문에 ‘에세이’로 발표된 것이긴 하나, 사실 ‘에세이’라는 관식은 글에 대한 독해 모드를 제약하는 것이지, 글의 내용이 작가의 체험임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사금파리」를 『싱아』에서 「그 여자네 집」으로 일제 말기 여성 동원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화되고 서사적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 놓인 글로 본다.

72 이선미(2004),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 기억으로 발언하기」, 『상허학보』 12, 상허학회, p. 406.

73 김영미(2020), 「박완서 문학의 세대론적 특성과 의미: 1990년대 자전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p. 164.

은 일제의 여성 동원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익히 알려져 있듯, 한국에서 정신대 동원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며, 1990년 1월에는 윤정옥의 「‘정신대’ 원혼 서린 발자취 취재기」가 연재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다.⁷⁴ 같은 해 3·1절을 전후하여 징병·징용·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을 촉구하는 담론이 형성되었고,⁷⁵ 5월 노태우 대통령 방일 문제, 6월 일본정부의 정신대 징집 부정 문제 등을 계기로 여성단체들의 진상 규명 및 공식 사과 요구 성명이 이어졌다.⁷⁶ 또, 7월에는 박완서와도 인연이 있는 ‘또 하나의 문화’ 동인들이 정신대 피해자의 원혼을 풀어주기 위한 글을 하기도 했다.⁷⁷ 1990년 11월 1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 오던 37개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결성했고, 마침내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이 ‘위안부’ 피해를 공식적으로 증언하기에 이르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윤정옥, 이효재는 피해자들과 같은 세대였으며, 이들은 활동 초기부터 “해방 몇 해 전에 같은 나이 또래의 여성들이 겪었던 비극을 잊지 못해 사재를 털어 자료를 수집하고 운동을 펼친 것”⁷⁸이라 밝혔다. 동원 세대의 끝자리에 속해 있던 박완서에게 ‘위안부’ 담론은 ‘피한 자’로서 자기 위치를 돌아보고 같은 세대 여자들의 공동 운명을 모색하게 한 계기였을 것이다.

1996년 2월의 한 기사는 박완서가 서울대 교수 신용하, 한국정신대문

74 윤정옥(1990), 「‘정신대’ 원혼의 발자취 취재기」 1-4, 『한겨레』 1990. 1. 4.-24., 한겨레신문사.

75 「일제 통치 피해배상 요구」, 『동아일보』 1990. 3. 1.; 「‘일제 희생자’ 배상 정부가 서두르라」, 『한겨레』 1990. 3. 7.; 「“한일협정은 무효” 소급배상 요구」, 『한겨레』 1990. 4. 17.; 「일본이 할일은 사죄와 보상」, 『동아일보』, 1990. 4. 24. 등 참조.

76 윤명숙(2015), 최민순 역,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이학사, pp. 55-58.

77 또하나의문화 편집부(1990), 「동인 회보」(35) 1990. 9. 28., 또하나의문화, pp. 5-7.

78 「‘오늘의 여성상’ 수상 윤정옥-이효재」, 『주간여성』(1268) 1993. 10. 14., 한국일보사, p. 38.

제대책협의회 대표 이효재 등과 함께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주최한 공동출판기념회에 참여한 소식을 알린다.⁷⁹ 이날 기념회에 오른 책 가운데는 박원순 변호사의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한겨레, 1996)가 있었고, 이 책의 다섯 번째 챕터는 “‘중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전망”이었다. 이 글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위안부’ 제도의 범죄성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박원순은 결론부에서 “본래적 의미에서의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가장 어두운 시대의 기억을 우리는 깨끗이 정리하지 못한 채 미결의 역사적 부채로 다가오는 21세기, 그리고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청산되지 못한 역사는 “한일간 또는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 사이에 지울 수 없는 상처, 건널 수 없는 심연, 계산할 수 없는 손해를 남기는 일”이라고도 지적한다.⁸⁰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가 ‘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국제법적 배상의 문제를 따지는 변호사 박원순의 일이었다면, 바로 이듬해 발표된 「그 여자네 집」은 피해자의 원한뿐 아니라 ‘피한 자’의 한까지 ‘계산할 수 없는 손해’에 기입한 여성 동원 세대의 한 사람이었던 소설가 박완서의 일이었다.

나아가 박완서는 청산하지 못한 채 다음 세대로 넘겨주게 된 역사적 부채를 1998년 발표작 「J-1 비자」를 통해 심화하기도 한다. 주인공 이창구는 “딸자식 정신대 안 내보내려” “열여덟 꽃다운 나이에 찢어지게 가난한 친정 부모에 의해 팔아넘겨지다시피 전실 자식이 주줄이 달린 삼십대 홀아비에 시집가 내리 삼남매를 낳고 나서 겨우 스물세살 적인 육이오 때 과부”가 된 여성의 아들로, 스스로 “그 시대의 가장 억울한 희생자의 몸을 빌려 태어났다”⁸¹라는 자의식을 가진 인물이다.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창구의 소설은 영어로 번역되기도 하였으나, 그는 번역자가 정신대도 모른 채 소

79 「「참여연대」 기금마련 출판기념회」, 『동아일보』 1996. 2. 1.

80 박원순(1996),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일본의 전쟁범죄 연구』, 한겨레, p. 334.

81 박완서(1998), 「J-1 비자」, 『창작과비평』 1998년 겨울, 창작과비평사, p. 84.

설을 번역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훗날 이창구는 이 소설 덕에 미국 C대학 동아시아학과에 원작자로 초청받는데, 그가 초청에 응하게 된 주된 이유 역시 번역본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행정적 절차로 인해 결국 이창구의 미국 방문은 좌절되고, “사전적인 해석만으로 될 일이 아”⁸²년 정신대 문제에 관해 직접 논의할 기회는 놓치고 만다. 「J-1 비자」는 일제 식민 통치와 신식민주의로 불릴 만한 ‘한국-미국’의 관계를 겹쳐놓으면서, 정신대 문제가 한일 관계를 넘어 초국적 의제가 되었으나 그것이 피상적인 방식으로 이해·소비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박완서는 피해자의 원한에 ‘피한 자’의 분노까지 더하여 여성 동원 문제를 세대적 문제로 확장한 데서 나아가 그것이 이후 세대로 전해지는 양상까지 비판적으로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4. 결론

이 글은 일제 말기 동원의 기억이 남성 중심으로 재구성되어 있으며, 집단적 정치 주체인 동원 세대 역시 여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두고, 한국문학에 나타난 여성 동원의 재현 양상에 주목하였다. 이때 한국문학에서 여성 동원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작가들이 동원 피해자와 같은 세대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1931년생 하근찬과 박완서는 ‘문단적’ 세대 위치가 다른 까닭에 한국문학사에서 각기 다른 작가군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이들은 공통적인 세대 의식을 보여준다. 특히 동원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결혼했던 또래 여성들의 비극적인 삶을 목격하였고, ‘피한 자’로서 증언에의 소명 의식을 가졌다. 이들은 여성 동원의 소설적 재현을 통해 일제 말기 10~20대 민중 여성들이 처해 있던 공통적 조건을 발

82 박완서(1998), p. 84.

견하고, 제국의 여성 동원이 같은 세대 여성들 전반의 삶을 비극으로 치닫게 했음을 드러냈다. 즉, 여성 동원의 문제를 피해자만의 불행한 개인사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동원 세대 여성들의 집단적 문제로 확장한 것이다.

먼저, 하근찬은 1965년 한일협정 이후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모색·재정립하는 기획의 일환으로 민족수난사를 반복적으로 썼고, 그러한 가운데 일제 말기 민중 여성의 삶과 일제의 동원 문제를 드러냈다. 하근찬의 일련의 역사소설은 일제 말기 10~20대 여성들이 제국의 동원과 민족남성의 ‘씨받이’를 위한 혼인 사이에 갇혀 있었음을 보여준다. 더하여 하근찬은 「월레소전」의 월레를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던 사할린 억류 동포로 설정하여 여성 동원의 문제가 단절된 과거사가 아니라 197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고통이라는 점을 환기하였다. 한편, 박완서는 제도적 민주화의 달성과 탈냉전 체제의 형성이라는 1990년대 국내외적 조건과 당대 여성계의 ‘위안부’ 문제 공론화와 공명하면서 식민지 시기 여성 동원의 기억을 재발견·재의미화하였다. 박완서는 여성 동원의 피해에는 피해자의 고통뿐 아니라, 그것을 피하기 위해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야 했던 ‘피한 자’의 원한까지 섬겨야 한다는 성찰을 보여주며 제국의 강제 동원의 피해를 세대적 문제로 확장하였다.

일제 말기 여성 동원 문제를 세대 문제로 확장하는 것은 민족·젠더·계급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전쟁피해를 자칫 일반화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한 자’ 사이에는 천운과 같은 우연적 요소만 작용한 것이 아니었고, 계급적 차이가 크게 작용했다. 박완서는 보는 눈이 많은 서울만 해도 공권력을 앞세운 강제 동원의 소문이 드물었으나, 서울 소개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이미 정신대 소동으로 뿔뿔히 분열된 분위기였다고 자전소설 『싱아』에 썼다. 이에 소설의 ‘나’는 이웃집 손가락 개수마저 훤히 아는 시골보다 어느 집에 장성한 딸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대도시 개성으로 피신하게 된다. 이는 달리 말하면 대도시로 딸을 감출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어야 화를 피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이 글은 피해자와 ‘피한 자’

사이의 좁힐 수 없는 거리를 인지하면서, 동시에 ‘피한 자’들의 죄의식과 증언에 대한 소명의식이 일제 말기 여성 동원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음을 부각하고자 했다. 하근찬과 박완서의 소설에서 일제의 여성 동원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세대 여성의 삶 전반을 위협하고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폭력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그들이 같은 시대적 경험과 세대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기 위치에 대한 성찰을 통해 공동체적 죄의식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다. ‘피한 자’들이 구성하는 ‘여성 동원 세대’는 역사적 과업을 통해 재구성되는 남성 중심의 세대 개념에서 배제된 집단 주체를 가시화하고, 정치적 집단화를 통한 세대 구성이 아니라 공동체적 윤리에 근거한 세대 구성의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자료

- 박완서(2000), 「증언의 의무」, 『일본 그 슬픈 악연』(한국여성문학인회 편), 답게.
- 박완서(1998), 「J-1 비자」, 『창작과비평』 1998년 겨울, 창작과비평사.
- 박완서(1997), 「그 여자네 집」, 『13월의 사랑』, 예감.
- 박완서(1996), 「삶과 정신의 운명적 이중성」, 『역사비평』 1996년 봄, 역사비평사.
- 박완서(1993), 「사금파리 동무야 지금 어디메…」, 『경향신문』 1993. 9. 28.
- 박완서(1992), 「작가의 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
- 박완서(1985~1990), 「미망」,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 박완서(1984), 「저녁의 해후」, 『현대문학』 1984. 3, 현대문학사.
- 박완서(1980), 「엄마의 말뚝」, 『문학사상』 1980. 9, 문학사상사.
- 박완서(1981), 「수상소감 내 마음의 매듭을 풀었으면」, 『문학사상』 1981. 10, 문학사상사.
- 하근찬(1997), 『내 안에 내가 있다』, 엔터.
- 하근찬(1988), 『산울림』, 한겨레.
- 하근찬(1981~1983), 「산에 들에」,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 하근찬(1978), 『월례소전』, 옥당.
- 하근찬(1973~1975), 「월례소전」, 『여성동아』, 동아일보사.
- 하근찬(1970~1971), 「야호」, 『신동아』, 동아일보사.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주간여성』, 『한겨레』

논저

권보드래(2020), 「내 안의 일본: 해방세대 작가의 식민지 기억과 ‘친일’ 문제」,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김건우(2018), 「운명과 원한」, 『서강인문논총』 52, 서강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김병익(1973), 「작가의식과 현실」, 『문학과 지성』 1973년 봄, 문학과지성사.

김수진·윤정옥(2001), 「‘애들, 어떻게 됐나? 내 나이 스물, 딱 고 나이라고.’」, 『여성과 사회』 제13호, 한국여성연구소.

김영미(2020), 「박완서 문학의 세대론적 특성과 의미: 1990년대 자전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김윤식(1988), 「천의무봉과 대중성의 근거: 박완서론」, 『문학사상』 1988. 1., 문학사상사.

김주연(1973), 「순응과 탈출: 박완서의 근작 2편」, 『문학과 지성』 1973년 겨울, 문학과지성사.

또하나의문화 편집부(1990), 「동인 회보」(35) 1990. 9. 28., 또하나의문화.

류동규(2011), 「식민지 학교의 기억과 그 재현: 하근찬의 경우」, 『우리말 글』 51, 우리말글학회.

박원순(1996),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일본의 전쟁범죄 연구』, 한겨레.

박정애(2019),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동원과 성노예: 공창제 정쟁과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 『페미니즘연구』 19-2, 한국여성연구소.

배상미(2024), 「‘망각된 식민지시기 기억의 복원: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 『여성문학연구』 62, 한국여성문학회.

백낙청(1979), 「사회비평 이상의 것」, 『창작과비평』 1979년 봄, 창작과비평사.

서승희(2022), 「‘테이션타이(挺身隊)’로 동원된 여성의 포스트/식민 현실과 재현 난제」, 『어문연구』 50-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양현아(2001), 「증언과 역사쓰기: 한국인 “군 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사회와 역사』 60, 한국사회사학회.

윤명숙(2015), 최민순 역,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이학사.

윤미향(2016), 『25년간의 주요일』, 사이행성.

윤정옥(1990), 「‘정신대’ 원혼의 발자취 취재기」 1-4, 『한겨레』 1990. 1. 4. -24., 한겨레신문사.

이상경(2011), 「박완서와 근대문학사: 서사의 힘으로 1990년대에 맞선 작가」, 『여성문학연구』 25, 한국여성문학학회.

이선미(2004),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 기억으로 발언하기」, 『상허학보』 12, 상허학회.

이지은(2023),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카를 야스퍼스(2014), 이재승 역, 『죄의 문제』, 앨피.

크리스티나 베닝하우스(2014), 한독젠더문화연구회 역, 「세대의 성: 1930년대의 세대적 특성과 남성성의 관계」, 『세대란 무엇인가?』(올리케 유라이트·미하엘 빌트 편), 한울아카데미.

한수영(2007), 「전후세대의 문학과 언어적 정체성: 전후세대의 이중언어적 상황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황선익(2012), 「사할린지역 한인 귀환교섭과 역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玄武岩(2010), 「『サハリン』残留韓国・朝鮮人の帰還をめぐる日韓の対応と認識: 1950~70年代の交渉過程を中心に」, 『同時代史研究』 第3号, 東京: 同時代史学会.

Bessel, Richard(1995), "The 'front generation' and Weimar", *Generation In Conflict* (Ed. Mark Rosem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인터넷자료

財団法人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2007), 「慰安所と慰安婦の数」, デジタル記念館 慰安婦問題とアジア女性基金, <https://www.awf.or.jp/1/facts-07.html>

원고 접수일: 2025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2025년 4월 27일, 게재 확정일: 2025년 5월 8일

ABSTRACT

A Study on the Mobilization of Women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he Novels of Ha Geun-chan and Park Wan-seo

Lee, Jieun*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memories of the mobilization at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period are reconstructed around men, and that the mobilization generation, a collective political entity, was also formed without women. It then focuses on the mobilization of women in Korean literature. It is very important that Ha Geun-chan and Park Wan-seo, who repeatedly dealt with the issue of women's mobilization in Korean literature, are of the same generation as the victims. In particular, regarding the issue of women's mobilization, they showed a sense of accountability for their testimony as those who avoided mobilization. Ha Geun-chan repeatedly wrote about the history of the nation's suffering in the wake of the 1965 Korea-Japan Agreement, in which he shows that the fate of women in the 10s and 20s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trapped between the empire's mobilization and marriage for the reproduction of the nation. Ha Geun-chan's novels reveal that

*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marriage for the reproduction of the nation is also a form of violence that infringes on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is is important in that it breaks away from the gendered system of representation between empire and colony. Meanwhile, When the issue of 'comfort women' came to the public eye in the 1990s, Park Wan-seo began to seriously address the issue of women mobilization. Park Wan-seo extended the damage of the Japanese Empire's war crimes to the generational by showing that the damage of women's mobilization should include not only the suffering of the victims but also the resentment of those who had to give up the precious things in their lives to avoid it. The "Women's Mobilization Generation," which was formed by those who were able to avoid mobilization, reveals a group subject that has been excluded from the concept of the male-centered war generation. Furthermore, this shows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generation through solidarity based on a communal ethic, rather than forming a generation through political collectivization.

Keywords Ha Geun-chan, Park Wan-seo, Comfort Women, Generation, Mobilization, Testimony

